

총회 제105회기 3차 임원회 갖다.

제41회 목사, 장로 기도회를 전북개혁신원에서 열기로

제105-3차 총회임원회(총회장 이경근)는 지난 4월6일(화) 대전시 유성구 대학교 소재 더 포럼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현안을 처리하였다.

이날 모임은 증경총회장단을 초청하여 워크숍을 겸한 회의여서 의의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하여 모임이 중지된 상태가 길어짐에 따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제41회 목장기도회 준비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고 오찬을 함께 하였다. 한편 별도로 제3차 임원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에 앞선 예배는 서기 신연식목사(디베라교회)가 인도하

였으며, 부서기 이다윗목사(찬양교회)가 기도하고, 누가 24:5-6을 인도자가 봉독한 후에 총회장 이경근목사(명안교회)는 “살아나셨느니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개회예배는 부총회장 박형진목사(안산새은혜교회)의 축도로 마쳐졌다. 회계 박병욱 장로(꽃밭교회)의 기도도 회무가 시작되었다.

회계보고를 비롯한 보고의 건은 유인물로 받고 사무총장의 교단 및 총회의 현안보고를 청취하였다.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덕소제일교회)는 고시부 6월 15일 준목고시와 교

육부 여름교역자수련회를 위한 교육부 모임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결의된 사항은 제41회 목장기도회를 5월17일(월) 오후 2시-5시까지 전북개혁신학원에서 갖기로 하고 임원들의 특별찬조금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저녁식사는 방역지침을 따르기로 하였으며 참가자들의 등록비는 전과 동일하게 책정(2만원)하였다.

한편 전북중부노회 팔복교회 김병근 목사의 심장수술 소식을 전해 듣고 총회에서 위로비를 전달하기로 하였으며 목장기도회 순서와 일체의 준비를 부총회장, 서기, 회계, 사무총장 4인에게



일임하고 5월 6일 최종점검하기로 하였다.

참석자: 총회장 이경근 목사, 부총회장 박형진 목사, 서기 신연식 목사, 부서기 이다윗 목사, 회록 서기 진상운 목사, 회계 박병욱 장로

배석 : 사무총장 박만진목사

총회 개혁신학연구원 이사회

원장으로부터 학사 및 현황보고 청취하고, 임원보선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종강예배

총회개혁신학연구원(원장 임종학 박사)은 지난 4월3일(토) 1학기 종강식을 가지고 다음 학기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총회개혁신학연구원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정상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그 어느 학기보다 학의지가 넘치는 수업이 진행되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과목마다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의 자율적 선택이 주어졌지만 교수진과 학생들이 열정으로 하나 되어 종강예배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대면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를 향한 기대를 갖게 했다.

한편 이날 종강예배는 총신 교무

처장 이다윗목사(찬양교회)가 인도하고 학우 이현주 전도사(꿈이 있는 교회)가 기도하였으며, 원장 임종학 박사는 “참으로 큰 자”(마태18: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교수부장 황호관 목사의 격려의 말씀에 이어 교단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가 총회와 교단의 소식을 전하고 황호관 목사의 축도로 은혜롭게 예배를 마쳤다.

교무처장은 2학기의 학사일정과 과제에 대하여 공지함으로 방학과 새 학기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하였다. 새 학기는 5월1일에 시작되며 새로운 학생들의 입학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소망적인 학기를 기다리게 했다.

총회개혁신학연구원(이사장 윤서구목사)은 지난4월15일(목) 교단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현안을 검토, 처리하고 총회개혁신학연구원의 학사 및 업무보고를 받았다.



구목사가 의장으로서 진행하였다.

회의에 앞서 원장 임종학목사가 회계를 대신하여 문서를 보고하고 만장일치 처리하고, 사임을 표명한 서기 김양섭목사의 사임을 수락하고 진상운 목사(에베에셀교회)로, 정년으로 퇴임한 회계 권병락장로의 후임으로 김재

호장로(전북동노회, 한소망교회)를 보선하였다. 이어 총장 임종학목사로부터 신학교 업무 및 상황보고를 청취하였다.

총회개혁신학연구원은 1년 3학기 운영하며 총 6학기를 이수하면 졸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41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개최된다.

오는 5월17일; 전북개혁신학원 대강당 장소 허락하다

전북개혁신학원(학장 임종학목사, 재인교회)은 지난 4월2일(금) 오전11시 학처장회의를 학장실에서 열고 총회임원회에서 요청한 목사장로 기도회 장소의 건을 심의하였다.

총회임원회는 제41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장소를 전북개혁신학원 대강당으로 정하고 학원 측에 장소사용허

락을 요청한바 있다. 이날 모인 학, 처장회의에서는 요청을 흔쾌히 허락하고 목사 장로 기도회가 예정된 5월17일을 중심으로 철저한 소독으로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완벽하게 지켜서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하였다.

최근 전주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어서 주변의 관심과 관

계관청의 감시의 눈을 의식하여 모든 행사를 취소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비상한 실정에서 나온 결의여서 그 의미가 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학교에서는 전국 각 노회에서 참석하는 목사, 장로에게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기로 했다고 한다.

산책길에서 얻은 지혜



총회장 이경근 목사
(평안교회)

집콕에 찌든 머리를 좀 식힐 요량으로 소리문화전당 뒤편 오송재 산책로를 찾았다. 뽕얀 물안개에 휘감긴 신비경에 매료된 나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와~와~ 감탄사를 토해내고 있었습다. 호수로 이어지는 개울가를 걷는 내내 청명한 물소리는 귀를 즐겁게 해주었고, 여유자적 해염치는 물세들의 모습은 평화로운 그 자체였습니다. 제 때를 만난 온갖 봄꽃들은 환하게 웃는 얼굴로 지친 나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정말이지 풍성하게도 피어 있는 모습은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제게 두 눈이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음에, 두 귀가 있어 청명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두 다리가 있어 호숫가를 걸을 수 있음에, 코가 있어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늘 이런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무심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바쁘게 살다보니 감사를 느껴볼 겨를이 없어서 이런 감사를 드린 적이 오래된 것만 같았습니다. 왜 주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지 새삼 그 깊은 뜻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사할만한 큰일로는 누구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이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달리 생각해보면 감사할 만한 일들이 평범한 일상의 주변에 넘쳐흐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루 세끼 식사를 할 수 있음에,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직장이 있어 일 할 수 있음에, 건강해서 어디든 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을 찾으려하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와 행복은 나를 찾아주길 기다리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찾고 깨달아야 할 일임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은 알 듯했습니다.

요즈음 지구촌은 길고 지루한 코로 나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기간 온

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서 극심한 감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듯합니다. 수익은 고사하고 월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회사 역시 직원의 수를 부서별로 줄이다보니 실직자들을 양산하는 꼴이 되었고, 남겨진 직원들 중에는 전에 근무한 곳보다 더 어렵고 힘든 곳으로 전근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도 저도 어려워서 아예 문을 닫고 폐업신고를 하는 업체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모두가 아우성인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니 오히려 성업 중인 친구들도 간혹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사업은 돈을 좇으면 절대 안 된다.”고요, 요즈음에 와서 그 말이 새롭게 와 닿습니다. 그들은 돈을 좇아서 허둥대지 않고 가치 즉 브랜드를 만드는 사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장사꾼은 이윤을 남기려 하는 것이 로되, 사업은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차이가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다못해 통닭집을 해도 어떤 이는 이윤만을 쫓기 위해 싼 재료를 쓰고, 싼 기름을 재사용한다면 그 가게가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러나 어떤 이는 내 통닭을 팔 으로서 고객에게 맛과 건강을 주고,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가치로 일을 한다면 자연히 돈은 결과적으로 따라오지 않을까요? 돈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는 단순한 원리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돈을 쫓으면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음을 보면 서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는 힘들게 돈을 쫓아가고, 어떤 이는 자연히 돈이 들어오게 합니다. 목적이 이윤이나? 아니면 가치나? 목적을 무엇에다 두느냐의 차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안개 속을 걷는 산책로는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2021년 제41회 목사·장로 기도회

주제: 살리고 치유하는 목회 (행27:31~37)



총회장 이경근 목사

- ◆ 일 시 : 2021년 **5월 17일(월) 오후 2시**
- ◆ 장 소 : **전북개혁신학원** (원장 임종학 박사)
(전북 덕진구 떡전4길14번지(금암동751-1))
 - 11시 임원회 및 노회장 워크숍
 - 오후 2시 목장기도회
- ◆ 회비 : 20,000원 (각 노회 찬조 : 200,000원)
농협 301-0116-9212-81(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 행사문의 :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 / 010-6358-0191

제41회 목사·장로 기도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우)03127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3-4 전화 02)742-3538

총회장 : 이경근 목사
서 기 : 신연식 목사

社 說

진정한 사과와 리더십

4월 7일에 놀라운 정치쇼가 이 땅에 벌어졌다. 수장들의 부끄러운 성추행 사건이 발미가 되어 공석이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치러진 날이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흥행 효과를 누렸기 때문에 정치쇼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결과는 이미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여 시장으로서 시무하고 있으니 말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장으로 취임하여 중도하차했던 10년 전 그 업무를 계속하게 된 오세훈 시장이 연일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장애인단체 간담회'에 참석하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오시장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재발 방지책을 내놓고 당시 인사문제와 장례식 문제 등과 관련한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처를 단행함으로써 시민들의 박수와 지지를 받고 있다. 지도자는 자기 권위에 도취되어 크고 작은 실수나 오류에 대하여

사과하려 들지 않는다. 사과하는 순간 권위에 손상을 입는다는 그릇된 사고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라면 사과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내로남불을 누렸기 때문에 정치쇼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결과는 이미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여 시장으로서 시무하고 있으니 말할 필요가 없다.

변명과 책임 전가에 능한 사람을 누가 지도자로 추앙하고 존경하겠는가? 목회자는 그가 섬기는 교회공동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지도자로, 아니면 지도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사과할 일이 전혀 없는 청정 인물로 살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으련만 사람의 연약성을 감안할 때, 그런 일은 기대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 통념이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그에게 존경이 가고 그의 지도에 기쁨으로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자주, 너무 자주 사과할 일을 만든다면 그는 이미 지도자일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제41회 전국 목사 장로기도회 준비에 붙여서

총회 임원회는 오는 5월 17일 제41회 전국 목사 장로기도회를 "살리고 치유하는 목회"라는 주제로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그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하고 동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 협력하여 성황을 이루기를 소망한다. 코로나 19 감염사태가 2년여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모든 일들이 비정상적이 되고 말았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거니와 요즈음은 모든 일이 코로나로 통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일반화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전국적인 기도회냐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왜 없겠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아무 준비도 대책도 없이 코로나만 바라보고 있다가 모일 만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어찌하겠는가?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다. 닥고! 조이고! 기름치고! 옛날 허름한 수송부 벽에 제일 선명하게 붙어있던 현판

의 표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 싶다.

준비하지는 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임원회의 결정은 백번 옳았다. 그 결의를 존중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 기도회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목사와 장로의 단합된 기도를 하나 남게서 들으시고 전복개혁신학원의 대강당을 가득히 채울 수 있게 된다면 이보다 큰 영광과 기쁨이 또 있겠는가? 모든 만사를 부정하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긍정의 힘을 믿고 뜻을 모아야 가야 한다. 임원회의 장소허락 요청을 받은 전복개혁신학원에서는 흔쾌하게 허락하고 목사 장로기도회를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니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 일도 시도하지 못하고 회기를 끝내게 될지도 모르는, 그래서 총회 제105회기는 코로나 회기였다는 기록을 남기는 일 없었기를 소망할 뿐이다.

전북노회 제171회 정기회 소식

노회장 김정호 목사(한소망교회)를 비롯한 신임원단구성

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개회예배는 증경노회장 최재철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제171회 정기회의 회무는 이승규 목사(소성교회)의 기도로 시작되었다. 서기 박종윤목사는 회원을 호명하고 정회원 52명중 36명이 참석하였음을 보고하니 의장 최영일목사가 개회를 선언하고 회무를 착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선출된 임원은 노회장 김정호목사, 부노회장 박종윤목사, 장로 부노회장 이정두장로, 서기홍주일목사, 부서기 김해수목사, 회의록 서기 노연수목사, 회의록 부서기 이부교 목사, 회계 조성운장로, 부회계 박인규장로이다. 신구임원 교체와 각 위원회 및 상비부의 보고를 유인물로 받고 잔무를 임원회에 위임하고 폐회예배를 드렸다.



경중노회 제50회 정기회 소식

신임 노회장 이철영 목사(은혜로교회) 선출하고 임원회 구성



제50회 노회임원
노 회 장 : 이철영 목사(은혜로교회)
부노회장 : 김동현 목사(회복교회)
부노회장 : 이형환 장로(강남교회)
서 기 : 전대천 목사(주찬양교회)

부 서 기 : 김연홍 목사(화평교회)
회의록서기 : 신대식 목사(중앙애니아)
부회록서기 : 신현국 목사(반석교회)
회 계 : 이훈훈 목사(영광교회)
부 회 계 : 한연숙 장로(영복교회)

경기노회 제196회 정기회 소식

신임 노회장으로 박만진목사(교단 사무총장)선출, 임원회 구성



한편 정기회에서 이상철, 구창근 목사를 회원으로 받고 환영하는 순서를 가졌다. 임원 선출 후에 잔무를 임원회와 시찰위원에게 맡기고 폐회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회원 58명 중 51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신임임원명단 : 노회장 박만진목사(덕

소제일교회), 부노회장 허종(복된교회), 박병욱장로(꽃밭교회), 서기 전기원목사(예성교회), 부서기 오영진목사(온세성교회), 회의록서기 류성훈목사(소망교회), 회의록 부서기 정용경목사(새영교회), 회계 송웅준목사(마음향기교회), 부회계 박다니엘목사(호신전원교회)

경서노회 제81회 정기회 성료

모든 임원 유임하고, 총회장 추천하기로 결의



경서노회(노회장 하예성 목사)는 제81회 정기회를 지난 4월 12일(월) 오전에 충남 당진시 송악읍 소재 송악관영교회 예배당(김요환목사시무)에서 열었다. 이날 회의에 앞선 개회 예배는 노회 서기 김요환목사가 인도하였다.

회의록서기 심기석목사(00교회)가 기도와하고 부서기 오성원목사는 요한복음 1:22-23절을 말씀 봉독하였으며 노회장 하예성목사(생명줄종교교회)는 '무엇이라 외치리이까?'라는 제목으로 말

씀을 선포하였으며, 증경노회장인 장창수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보고사항은 노회 절차대로 받고, 임원회 예배당(김요환목사시무)에서 열었다. 전체를 1년 유임하기로 하는 한편 현 총회의 부총회장 박형진 목사를 제106회 총회의 총회장으로 추천하기로 결의하고 총회개혁신학원위원의 이사로 조성영 목사를, 황호관 목사를 개혁공보사 이사로 각각 파송하기로 결의하고 모든 잔무를 임원회에 입임하고 폐회 결의하였다.

전북동노회 교역자회 정기총회

신임회장 정대진 목사(온전주교회 담임)와 임원단구성

전북동노회 교역자회(회장 신장균 목사)는 지난 3월 29일 오전 11시 전북개혁신학원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개회예배는 부회장 최점용목사(은혜교회)가 인도하고 부회장 주달영목사(큰사



랑교회)가 기도하고 회장 신장균 목사가 사도행전 9:3-9절을 본문으로 '인생을 바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

하고 총회장 이경근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후 화무처리와 함께 새 임원을 선출하고 증경회장 채영구목사의 기도로 은혜가운데 정기총회를 마쳤다

새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정대진목사(온전주교회)

부회장 : 주달영목사(큰사랑교회)

최점용목사(은혜교회)

서기 : 김대성목사(은혜와평강이넘치는교회)

회계 : 양정자목사(빛과진리교회)

총무 : 양희태목사(승리교회)

總 會 改革公報

창간일: 1984년 10월 1일
등록일: 2012년 8월 27일

서울다-10503호 발행인 이경근 사장 황호관 이사장 이충년 인쇄인 김갑기

대표전화 : (02)742-3538 http://rpcknews.com 웹하드: RPCK1004/개혁총회
주필 황호관 편집인 박만진 논설위원장 김양섭 취재부장 유남규
게좌번호 : 동행 301-0140-5587-41(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16길 73-4(연건동 195-15)
총회홈페이지 : www.rpck21.org E-mail : pmj0675@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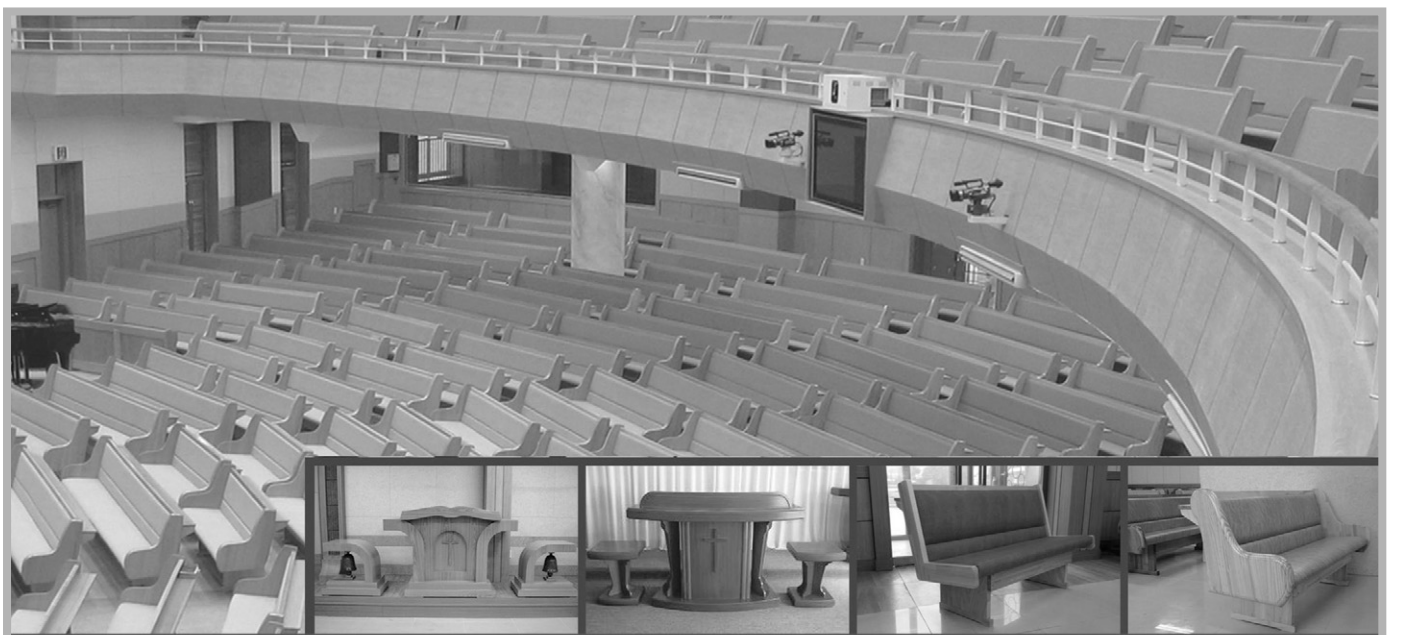


경중노회 제50회 정기노회



노회장 이철영 목사
(은혜로교회)

노 회 장 : 이철영 목사(은혜로교회)
부 노 회 장 : 김동현 목사(회복교회)
이형환 장로(강남교회)
서 기 : 전대천 목사(주찬양교회)
부 서 기 : 김연홍 목사(화평교회)
회 록 서 기 : 신대식 목사(중앙애니아)
부 회 록 서 기 : 신현국 목사(반석교회)
회 계 : 이훈훈 목사(영광교회)
부 회 계 : 한연숙 장로(영복교회)



대표이사 김 재 호 장로
010-3653-6162
(본교단 전북동노회 한소망교회 시무)

(주)모리아성구사

기술 특허 업체
품질 인증 업체
벤처기업인증업체

문의 1644-6162

사 훈

신앙 :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으며
품질 :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자세 : 최선을 다하여
목표 : 세계선교를 이루자

강대상, 장의자, 개별의자, 극장식 의자, 레자 방식, 성가대 가운 등
기타 성구품목 전문생산



모리아성구사
www.moriah.kr

서 울 사 무 실 : 고객센터: 1644-6162,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16(송파동) 3층
전 주 공 장 : 일반전화: 063)211-6161~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7가 797-4
인도네시아 공장 : 14A Block F1 Tamman Pinang Indha, Sidoarjo, Surabaya Indonesia

신학&신앙



장 영 목사
(신약학 교수)

지난 시간에 제1장은 “준비진술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준비진술부분에서는 청중들이 앞으로 전개될 계시록 이야기를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필요한 ‘일반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들이란 (1) 책의 제목, (2) 등장 인물들, (3) 청중의 주의를 끌기위한 표시문, (4) 이야기와 관련된 지리적 위치, 그리고 (5) 저자와 청중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같은 것들입니다.

먼저, 1) 이야기의 제목은 1:1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있는 데, 오늘날 우리가 제목으로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란 제목은 책이 기록된 후 누군가 그렇게 제목을 달아놓았지만, 당

시 전통으로 보면 각 성경의 첫줄을 그 책의 제목으로 사용하곤 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편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2) 등장인물들에 관해서는, 간접적이지만, 1:1에서 본 계시는 하나님인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 계시 전달자이지만, 또한 계시록 안에서는 주요 등장인물들로서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1:13-16 부분에서는 계시록의 주인공이신 인자의 영광스러우신 모습을 자세히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분의 특징적인 모습들은 2,3장에 나오는 쇼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각 편지의 머리 부분에 그 교회에 관련된 모습으로 소개됩니다.

3) 1:3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라는 표현에서 ‘말씀을

남독하는 자’(단수가 있고 ‘듣는 자들’(복수)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요한계시록이 예배적 상황에서 읽혀지도록 의도된 글이라는 것을 암시해주며, 그 후 반절 “...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는 내용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 대한 축복과 (때가 가깝다)는 내용의 긴박성은 청중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한 주의 표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1:4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 하노니...”라고 하는 부분은 수신자의 지리적 위치를 가리켜주고 있으며, 그리고 1:9 “요한이 밧모라는 섬에 있었더니”는 발신자의 위치와 상황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5) 1:5-6 “우리를 사랑하시라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는 구절은 먼저 편지를 보낸 분은 역사

상 그들 가운데 육신으로 있었던 예수로 그들의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또한 1:9”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도된 글이라는 것을 암시해주며, 그 후 반절 “...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는 내용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 대한 축복과 (때가 가깝다)는 내용의 긴박성은 청중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한 주의 표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모든 성경 이야기들은 각 자의 역사적 위치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으로 길고 긴 역사적 과정에 걸쳐 일어나는 사건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각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는 각자의 역사적 위치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천지창조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출애굽, 사사시대, 이스라엘 왕국의 설립과 붕괴,

그리고 바벨론 유수와 귀환의 시기를 거쳐 오면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대망케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있고, 그렇게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에 들어오자, 복음서들에서는 그들의 메시야가 드디어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신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는 그분이 승천하신 후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워 가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며,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그 후의 이야기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양이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의 목표인 새 하늘 새 땅에 (완성된 구원의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새 예루살렘성”을 완성한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장은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의 마지막 위치를 설정해 주고 있는 (내러티브학적 표현으로 말하면) 이야기의 ‘진입점’ (point of attack)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신앙



유 정 선
(한국성서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하나님 이해하기, 신론은 우주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사역으로 마무리하려 한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첫째 우주만물의 창조 사역과 둘째 인간의 창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우주 만물의 창조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학계에서 거론되는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 및 인간의 기원은 기독교가 주장하는 창조와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도 우주 만물의 창조 및 인간 창조와 관련하여 자연주의 신학을 견지하고 있는 로마교회와 이상주의 신학을 견지하고 있는 개신교와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학계에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에 대하여 빅뱅 이론(Big Bang Theory)을 수용한다. 이는 원시 원자론을 주장했던 라메이테(George Lemaitre)의 이론에 근거한 조지 게모(George Gamow)의 주장된 것으로 그는 우주 만물은 가장 적은 단위인 원자가 수축 팽창하면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독교 내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수용하고 있다.

창조관 일 위, 이 위, 삼 위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야 할 이유는 없었으나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의지적 결정에 의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해 공간 및 시간, 영계 및 물질세계를 없는 상태(무)에서 있게 하신(유) 하나님의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이상주의 신학을 견지하고 있는 개신교는 창세기 1:1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며 초월하신 분이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무로부터의 창조(Ex Nihilo Creatio)”를 주장한다.

창 1:1의 “...창조”는 히브리어 “바라”

로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창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주장한다.

반면 자연주의 신학 이론을 수용하고 있는 로마교회는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다’는 자연주의 입장에 따라 하나님이라도 선재하는 물질 없이 창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창세기 1장 2절을 근거로 주장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창1:2)에서 “수면”이 선재하는 물질이라고 해석함으로써 무에서는 아무 것도 나올 수 없으므로 “유로부터의 창조(Ex Nihil Nihil Fit; out of nothing, nothing comes)”를 주장한다.

둘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인간 창조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창세기 2장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이다.

즉 하나님은 “땅의 흙” 선별된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만드셨으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즉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심으로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창2:18).

아담을 잠들게 하신 하나님은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창조하셨다. (창2:21)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셨고 하와의 역할이 돕는 배필임을 고려할 때 인간은 남녀가 평등한 관계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창세기 1장 26-27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즉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으나 하나님의 형상은 지성과 감성, 의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인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이에 대하여 이사야 43장 7절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 내가 지었고 그들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동 정



이경근 목사(총회장, 평안교회)
3월 29일(월) 전북동노회 교역자회 총회 축도
4월 6일(화) 총회 임원회 설교 및 인도
4월 8일(목) 전북개혁신학원 부활절예배 인도



임종학 목사(증경총회장, 재언교회)
4월 1일(목) 총회개혁신학 교수회의 인도
4월 3일(토) 총회개혁신학원 1학기 종강
4월 6일(화) 증경총회장 임원 워크숍 참석
4월 15일(목) 총회개혁신학 이사회 참석



류현욱 목사(증경총회장, 동명교회)
3월 16일(화) 전북동노회 여전도연합회 참여
3월 29일(월) 전북동노회 교역자회 정기총회 기도
4월 6일(화) 본 교단 증경총회장 임원 모임 참여
4월 15일(목)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이사회에서 기도



황호관 목사(증경총회장, 본보사장)
4월 1일(목) 총회개혁신학 교수회의 인도
4월 3일(토) 총회개혁신학원 1학기 종강
4월 6일(화) 증경총회장 임원 워크숍 참석
4월 12일(월) 경서노회 참석



윤서구 목사(증경총회장, 임마누엘교회)
4월 1일(목) 총회개혁신학 교수회의 인도
4월 15일(목) 총회개혁신학 이사회 참석



박형진 목사 (부총회장, 새은혜교회)
4월 6일(화) 총회임원회 참석
4월 12일(월) 경서노회 참석



신연식 목사(총회서기, 디베라교회)
4월 6일(화) 총회 임원회 참석
4월 12일(월) 경서노회 참석



이다윗 목사 (부서기, 찬양교회)
4월 1일(목) 총회개혁신학 교수회의 인도
4월 3일(토) 총회개혁신학원 1학기 종강
4월 6일(화) 임원회 참석
4월 12일(월) 서울남 노회 참석



김정호 목사(전북노회장, 한소망교회)
4월 13일(화) 전북노회 노회장 당선



박만진 목사(사무총장, 덕소제일교회)
4월 1일(목) 총회개혁신학 교수회의 인도
4월 3일(토) 총회개혁신학원 1학기 종강
4월 6일(화) 증경총회장 임원 워크숍 참석
4월 15일(목) 총회개혁신학 이사회 참석
4월 19일(월) 한교연 임원회 참석

본보 발행을 위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경근 목사
발행인



이충년 목사
이사장



황호관 목사
사장

보내주실 곳

농협 301-0140-5587-4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전화: 02)743-3538, 010-6358-0191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본보 후원하신 분

광 고	3,300,000	임용대	300,000	이충년	300,000
총회신학교	900,000	강대민	200,000	장영광	300,000
이 경 군	800,000	박춘배	350,000	조성영	50,000
경기 노회	400,000	소성교회	300,000		
전북 노회	300,000	디베라교회	50,000		
전북동노회	400,000	박경남	1,800,000		
전북중부노회	250,000	김선영	350,000		
서울남노회	400,000	주향교회	50,000		
서울동노회		새생명교회	100,000		
경서 노회	300,000	이다윗	50,000		
경중 노회		이해동	200,000		
남부 노회	100,000	김황용	100,000		
김 양 섭	150,000	유한수	50,000		

· 후원이사 매월 200,000원, 100,000원
· 노회이사 매월 100,000원, 50,000원
· 개인예배광고 년 300,000원
· 1년 1번 구독료 50,000원
· 기타 개인후원 등등



總 會

改革公報

연 구독료를 납부해 주십시오!!



사장 황호관 목사

“전국 교회와 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본보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실 곳

농협 301-0140-5587-4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년구독료는 5만원 입니다.

※ 예배광고비는 연간 30만원 입니다.
※ 송금 후 총회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 會

改革公報

우)03127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3-4(연건동 195-15)
전화: 02)742-3538, 010-6358-0191 팩스: 02)742-3539

지상설교

“시온에서 안일한 자”

(아모스 6장 1-6절)



이춘년 목사
(중앙총회장)

드고아의 목동 출신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는 사회정의가 이루어질 때 나타날 것임을 외치면서 시온에서 안일한 자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안일한 삶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심이 필요하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마11:28, 29). 악인은 안정치 못하고 요동하는 배와 같으니(사57:20) 성도의 삶에는 수고가 끝나고 안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계14:13, 히4:9, 11). 그럼에도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님의 집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안일에 대해 말하면서 안일에 빠진 자를 화방을 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하는 자로서 휴식을 취할 수는 있으나 안일함에 빠져 다른 사람에 대해, 주변 상황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나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주일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육신적 질병에 시달리거나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 환경적 어려움에 몰려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자칫 무관심하기 쉬운 우리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 시온에서 안일한 자는 누구인가?

주제 넘은 자, 건방진 자, 방종하며 조심성이 없는 자, 제멋대로 행하며 이웃에 대해 무관심한 자가 범주에 속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는 이와 같이 잠든 영혼에 주목하면서 특별히 시온 즉 예루살렘에 거하며 안일에 빠진 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서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 거한다고 해서 저절로 평안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떠날 때 예루살렘도 망하게 될 것임을 예언

했습니다. 도시의 영적·물리적 힘을 믿고 안일에 빠진 자는 마치 무화과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운 자와 같습니다. 선지자는 그런 자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2. 시온에서 안일한 자의 잘못은 무엇인가?

안일에 빠진 자들은 심판의 날이 멀다고 강포한 자리에 가까워지는 잘못을 범합니다(3절). 안일한 자는 지금 간접적인 경고와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보이지 않는 진리에 대해 아직도 멀리 있다고 하며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심판의 날을 깨닫지 못하는 우를 범합니다.

또 그는 상아 침상에 누어 사치와 방종을 일삼습니다(4절). 형제의 영적 고통과 육적 아픔에 무관심하며 있는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요구에는 무감각한 것을 말합니다. 또 책임을 전혀 질 줄 모르는 것이 그들의 잘못입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어 다른 사람에 대해 무감각하고 무책임하며 조심성 없이 죄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나 코소보 난민, 탈북자 등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일은 성도가 행할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시온에서 안일한 자를 책망한 아모스의 경고가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3.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할 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또 한 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죄를 죄로 바로 알고 불의한 것은 그 시작부터 끊어야 합니다. 한편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하기에 분주해야 합니다. 봉사할 기회를 찾아 헌신하기에 바쁘고 말씀 읽기에 전념하고 기도 하기에 힘쓰며 시간을 아껴 전도하는 일에 쓰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이들의 본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의 충성을 모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안일한 가운데서 벗어나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선 교 지

새 영혼들의 세례식과 성찬식

눈이 내린후 차가운 날씨가 며칠째 이어지는 4월중순 그레드 새 봄의 생명을 거스름순 없습니다.

주일통금 때문에 세례식을 겸하여 부활절예배를 4월첫 토요일에 하려던 계획이 방역의 강화로 다시로, 주일 통행금지로 바뀌며 할수없이 마침 성금요일에 참석가능한 소수의 형제들이 모여서 성찬식과 세례예식을 행한후 주일에 Zoom을 통한 랜선으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2명의 새 영혼을 보내주시고 다른 2명의 믿음의 커플 S형제와 SN자매에게 세례를 통한 죄 씻음의 기쁨과 새 생명주심을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T국은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 그 수가 세계5위가 되어 4월13일부터 시작된 라마단 금식부터 5월의 라마단 명절에 이르기까지 평일 저녁7시 이후와 주말 전체 통금, 도시간 이동 제한이라는 초강수 방역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C형제의 믿지않는 아내F를 위하여

C형제(49)는 K시에서 치과의사로 일하는 형제인데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되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완치된후 F가 죽음의 문턱을 헤쳐 줄수없음을 깨닫고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있던중에 주님의 은혜로 저와 만날수 있어서 1대1양육을 성실하게 끝내고 지난 4월초 성금요일에 세례 받고 믿음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눈이 제법 내린 지난 주일 추운 날씨 야할 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또 한 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 136년 역사에 기념비적 사건이 될 세계 최대 규모의 기독교 테마파크, 한국기독교기념관이 세워진다.

교계 안팎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

는 한국기독교기념관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한 복음전파의 공간이요, 기독교인의 긍지와 자부심이 될 전망이다. 30일 오전11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 현장에서 드려진 착공감사예배는

하신 성금요일이 G형제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G형제의 거듭난 생일로 기억될것 같아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몇차례 제가 1대1양육을 위하여 E시에 다녀왔지만 너무 거리가 멀어서 주일예배에 정기 적으로 참석할 수 없 는 G형제가 공동체와 친밀감을 가지고 믿음의 자라날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E시를 자주방문해야 합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말미암아그가 받은 깊은 상처의 회복과 K시에서 안정된 직장을 얻어서 공동체와 더불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쁨사랑의 4월 소식

S형제와 SN자매 커플의 세례

4월첫주 수요일 K시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믿음의 형제 S와 SN자매 커플에게 따로 세례례배풀었습니다. 두 영혼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이유로 세례 받기를 망설이다가 S형제의 바람과 회개한 표가 확실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S형제와 SN자매가 성실하게 주의 공동체의 지체가 되고,또한 법적으로 완벽한 부부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Z자매의 귀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Z자매(17)와 처음 전화와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나눈것이 2월인데 3월

협했기 때문에 Z자매가 성년이 될때까지 1년반동안 자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는 약속만 하고 부활주일모임에도 초대하지 못했습니다.

U형제의 개업을 통한 주의 뜻을 구하며

저희 공동체의 U형제는중고자동차알선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률이 개인이 중고차알선업을 할수없도록 개정된 3월초에전업을 결단하고 새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제과점을 운영한 경험을 살려 바클라바(중동 전통디저트)가게를 개업하게 된 것입니다.개업 때에 가게를 방문해서 기도한후 복가주의 한 권사님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형제



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U형제는 자신이바클라바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주께서 호뭇하게 쳐다보시는 꿈에서 갇후 개업을 결심했다는 말을 듣고 주의 뜻이라면 형제가 바빠졌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더 섬기는 일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말라티아사건 순교14주년 추모예배

4월18일 주일저녁 T국 말라티아에서 독일인 사역자 T와 현지인 사역자 U와 Y형제의 순교 14주기 추모예배를 S시에서 드리기로 했는데 도시간 이동 제한으로 함께 하려던 계획을 취소하

세계 최대 규모의 기독교 테마파크 한국기독교기념관, 충남 천안에 세워진다...3월 30일 착공감사예배

최귀수 목사(한교연 사무총장)의 인도로 진행, 김효종 목사(한교연 상임회장의 기도, 김고현 목사(한교연 총무 협회장)의 성경봉독(사도행전 26장 24~25절), 김민수 교수(중앙대 음대)의 특별찬양 후에 특별기도시간을 가졌다.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세계선교와 코로나19 소멸을 위하여’ 각각 김학필 목사(한교연 상임회장)와

이병순 목사(한교연 공동회장), 김병근 목사(한교연 서기가)기도했다.

이어 송태섭 목사(한교연 대표회장)가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송 목사는 “아시아에서 복음으로 성공한 나라, 복음과 함께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에 기독교 테마파크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다음세대를 향한 비전으로 건립하는 한국기독교기념관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운

고 랜선으로 참가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흘린 피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과 같이 거룩한 희생의 마중물이 되어 T국에 조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Covid19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목하게 되는것은 미안바의 군사쿠데타로 인하여 항쟁하는 국민중 난민들이 이웃국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 T국에서도 시리아난민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쉽게 만날수 있습니다. 중동상황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수니파의 세속화와 시아파의 과격화가 그이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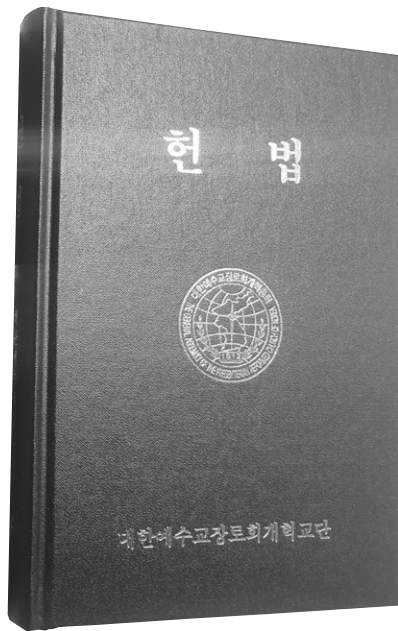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이 국교를 정상화한것은 놀랄만한 일이며 수니파의 큰형같은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스라엘과 국교정상화하는것은 시간문제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음세대 때문인데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T국에서는 사역자가 쿠르드족을 도우면 어려움에 처할수 있는데 정부가 쿠르드자치정부가 생기는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쿠르드를 대표하는 정당 HDP 대표가 수년째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스물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자이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스기라4:6)

지금 저희의 목표는 성장이 아니라 버티는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께서 허락하신 사역자에서 버티는 사역자가 결국 최종 승자가 될것이라 여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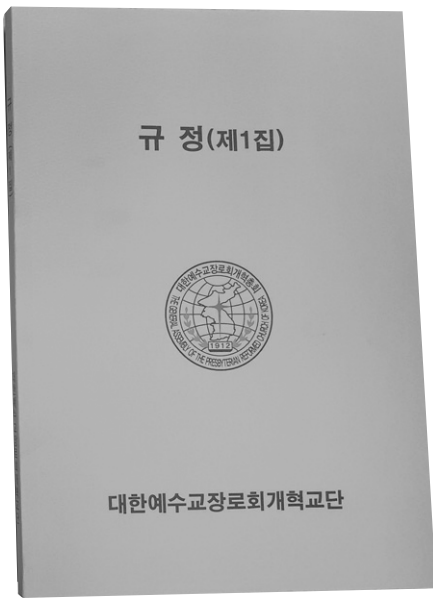
개정헌법



비치용 10,000원 / 소장용 15,000원

주문 : 노회, 신학교 및 개인별 택배(10권 이상) 주문 하세요.

규정 (제1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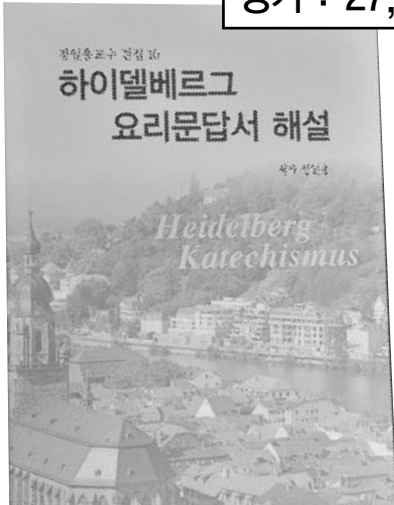
가격 5,000원

주문 : 노회별 주문은 할인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해설 출판 보급

정가 : 27,000원



주문/ 담당 이다윗목사/010-2931-0691
우리는행/1005-604-047069(찬양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총회장 : 이경근 목사 사무총장 : 박만진 목사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3-4(3층)
전화 02)742-3538, 010-6258-0109

주문전화 / 02-742-3538 사무총장 : 010-6358-0191
통 장 / 농협 301-0116-9212-8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더불어 생각할 正論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류현욱 목사
(종교총회장, 동명교회 담임)

얼마 전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서는 50세 된 가정주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유명 백화점에서 고급 의류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구속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이 보도되었을 때 사람들은 적잖게 놀랐다. 왜냐하면, 그녀는 부유층 주부였기 때문이다. 아우디 외제 차를 비롯해 고급 승용차 2대를 굴리며 시가 15억 원이나 되는 60여 평 아파트에 사는 부유층 주부였다.

그 외에도 수십억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세상 사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훔치면 마음에 위안을 찾을 수 있어 이 같은 범행을 했습니다” 돈도 가질 만큼 가졌고 재산도 모을 만큼 모았는데 세상 사는 것이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서 뭔가 재미있는 것을 찾다 보니 이것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90만 원짜리 수입품 팬티를 사입는 사람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팬티는 세탁소에 맡겨야 한단다. 수십만 원을 주고 팬티 한 장을 사입을 만큼 부유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주 빈곤하고 공허한 사람이다. 한때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운동이 있었다. 달리기 마라톤이다. “왜 이렇게 달리냐?”라는 머리가사 가실릴 정도로 달리기 열풍이 전국을 강타했다. 언뜻 생각하기에 건강을 위해서, 다 이터트를 위해서 달리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전문가의 말하기를 ‘현대인들의 공허함과 우울함과 스트레스와 인생에 대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반응이요, 이런 운동은 실질적으로 생활에 많은 활력을 가져다준다’ 라고 했다.

저 역시 숨이 턱까지 넘어올 정도로 달렸던 적이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음이 답답할 때 달렸고, 마음에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스트레스가 나를 짓누를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달렸다. 사람들은 뭔가 자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을 때, 그때 달리고, 또 달린다. 인생을 좀 더 즐겁게,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이다.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은 모든 이들의 소망이다.

[솔로몬도 인생의 행복을 찾아 끝없이 애를 썼던 사람이다. 솔로몬은 좀 더 나은

삶과 좀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별의별 것을 다 해보았다. 그는 인생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궁궐을 으리으리하게 지었고 그 화려한 궁궐에서 솔로몬은 창조 이래로 전후후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천하를 호령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허무함과 공허함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수많은 ‘은 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들을 두었다’ 라고 전도서에서 기록하고 있다. 솔로몬은 더는 비발 것이 없는 왕이었다. 솔로몬은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며 이것저것 다 해보았지만 돌아보니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무의하다고 했다.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솔회한 것이다. 그러한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 12:13)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지만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 딱 하나가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라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바로 헛되지 않은 것이며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인생의 허무함을 어떻게 달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면서 허무를 잊어보려고 애를 썼고, 어떤 사람은 과소비하면서 허탈한 인생을 잊어보려고 애를 쓴다. 뭔가 새로운 활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달리기도 하고, 취미에 몰두하며 좀 더 나은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이런 외적인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인생의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다. 살다 보면, 우울해질 때가 있고, 스트레스가 나를 짓누를 때가 있고,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다. 요즈음은 코로나 19의 재난으로 인하여 불안함이 문득문득 느껴지기도 하고 행복이 내게서 멀어졌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그럴 때 맘을 뻔뻔 흘리며 힘껏 달려보면 어떨까? 마음이 한결 유쾌해질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영혼은 이보다 더 빨리 주님의 곁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 안에 참 행복이 있고 참 즐거움이 있으며 참된 생명과 인생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인생에는 참 기쁨과 행복과 하늘의 생명으로 가득 넘쳐나게 될 것이다.

목양칼럼



김정용 목사
(종교신교회 담임)

그라이스의 두 귀부인이 오랜만에 만났다. 그중 아주 고급으로 차려입은 한 부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석을 하나하나 꺼내 보이며 자랑했다.

그리고 조촐하게 웃 입은 친구에게도 그동안 모아 놓은 보석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자 두 아들을 불러서 인사를 시키고 보석보다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자랑했다.

그렇다. 자녀, 곧 어린이는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선물이며, 나라와 인류의 보배이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인류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총리로 역임했던 처칠(Winston Churchill)은 어린이를 만나면 모자를 벗고 정중히 인사를 하었다고 한다.

한번은 함께 가던 수행보좌관이 “각각 왜 어린이들을 만나면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십니까?”하고 물었더니 “이 어린이들 가운데 장차 위대한 인물이 날 수 있기 때문이란 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성경은 “자식들은 여호와와 함께 하시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127:3)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 주신 보배로운 선물인줄 알고 내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을 내 자녀처럼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작금에 우리 사회는 어린이를 마치 개인의 소유물로 여기고 학대를 하는가 하면 자녀를 무거운 짐으로 여겨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여 세계에서 한국의 출산율

이 꼴짜라고 한다.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귀중한 생명인 태아를 낙태하는 비인륜적인 행위를 합법화 하고 또한 어린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천인공로 할 행위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금수만도 못한 사악한 범죄인 것이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해외에서 있었던 동영상과 함께 아주 감동적인 사연이 방송되었다.

내용인즉슨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입에 물고 먼 길을 달려 동물병원 앞에 가서 문을 두드렸다.

수의사가 무슨 일인가 하여 문을 열고 나가서 살펴보니 새끼 고양이가 눈에 무엇인가 찰려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발견하고 치료를 해주려고 어미 고양이를 새끼 고양이를 함께 한 가정에 입양 시켜주었다는 이야기이다.

말 못하는 미물의 집승도 자식 귀한 줄 아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어린 자식을 학대하고 죽이는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 정말 분노가 치민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에 과속을 하다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뉴스에 보도 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어린이는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선물이며 인류의 보배이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국가는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어린이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며칠 후면 어린이 날이다. 어린이 날은 어린이의 건강과 행복을 축복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다.

어린이날은 1856년에 미국에서 한 목사가 6월 둘째 일요일을 어린이날로 정한 후, 1883년부터 미국

각지에 퍼져 이 날을 어린이날로 삼게 되었다.

일본 통치하에 있던 1922년에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소파 방정환 선생을 비롯하여 색동회가 주동이 되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

그러나 1939년에 일제의 억압으로 중단되었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1946년에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 1957년에는 대한민국 어린이 현장을 선포하여 어린이 날을 더욱 뜻 깊게 하였다. 1970년에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공포하였다.

그러므로 이번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자녀, 곧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새롭게 하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건강한 아이로 양육해야 할 것이다.

자녀이야기

여기에 맞춰 고백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절망적으로 외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잠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이 되는 고통을 이토록 부르짖으셨으니 우리는 이 엄청난 분의 자녀 됨을 어떻게 간직하며 무슨 말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릴 뿐이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복음을 들고 자연의 악조건과 인종, 언어의 갈등을 잘 극복하고 아프리카 대륙 횡단에 성공하였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는 질문에 자신의 낡은 시계를 보여주면서 “나는 시계의 초침이 재작재작 움직이며 소리를 낼 때, 그 소리가 주님의 음성 ‘I am with you always’ 라는 말씀으로 들려서 가능했다.”고 하는 일화가 놀랍다.

한 시도 함께 하기 어려운 인간관계에 비취보면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히 하시는 그 분 앞에서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으랴.

그리고 자녀는 왜 나에게 그러도 소중한가? 그 이유가 있다. 나는 자녀로 인해 배우고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찌 있는가? 올바른 깨달아알도록 하는 방향타가 되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the world gate로 사용되었으니, 인간존재에 기여했다는 생각에 내심 뿌듯하고 하마터면 잊고 지나칠 뻔했던 그 고귀한 은혜와 사랑,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날 낳아 길러 주신 부모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자녀사랑을 통해 뼈저리게 깨우쳐 알게 되었으니 나는 이 깨달음을 통해 나 자신의 존귀함까지 배웠기에 내게는 자녀들이야말로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자리에 자녀들을 둔다.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했고, 그들이 가정을 이룰 때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했으며 그 정신과 배려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아이들을 낳아 키우면서 애지중지하신 그 사랑을 느끼면 나는 즉시 하나님과 부모님의 사랑으로 바꿔 생각했다. “하나님 심히 부족한 저도 이렇게 사랑하셨나요? 어린 저희들을 키워 가르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어머니!”

나는 가르치는데 힘들다고 짜증이나 괴로워 한 일이 한 번도 없다. 아들 유학 15년을 지원하며 유학비를 보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뿐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를 통해 세상에 발을 디딘 자녀,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어버이 은혜를 깨달아 배웠으니, 이 정도 수고는 정녕 아무 것도 아니고 정당하고 오히려 감사할 일이지 하며 가슴에 벅차오르는 희열로 위로를 받았다.

단 아들이 음악 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주장이 강했음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일로 주위에 어떤 분은 유감

스러게도 “목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음악유학까지 보내는가, 개척교회 목사 주제에...” 라는 말로 비아냥대도 내게 접근하는 비난과 조롱이 아니기에 지금도 그 기억 생생해도 분노의 대상은 아니라는 내 태도는 명백하다. 자녀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출현한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된 존재이다.

이 자녀들이 가르쳐주는 사랑과 은혜는 너무도 복 되고 아름답다. 만일 자녀들이 없었다면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어찌 알았으랴!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과 감사의 울림이 그치지 않는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부모님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녀를 주셔서 그 깊은 은혜와 사랑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우리는 만족하며 경배와 찬미를 드립니다. 이 깨달음을 인도하신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2021년 105회기 고시부 준목고시 공고

1. 고시응시자격

고시응시의 자격은 헌법 제 64조 1항에 의거하여 목사후보생으로서 교단직역 또는 인준신학교 및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자이다. 인준신학교는 다음과 같다. 총회개혁신학원, 개신대학원대학교, 오이코스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대한신학교, 총신대학교, 합동신학대학교(M.Div).

2. 고시일정

- ① 원서교부 / 서울지역 : 교단본부(02-742-3538) 호남지역 : 전북개혁신학원(063-252-1531)
- ② 제 출 처 / 고시부서기 유남규 목사(010-4020-0675) (5492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17 이메일 : ynk8283@hanmail.net
- ③ 제출서류 / 1)고시원서(이력서, 추천서 포함) 2) 신학교(연구원 과정) 졸업증명서 3)가족관계증명서 4) 명함판 사진 3매

- 1) 원서접수 / 2021년 4월 30일 당일소인유효
- 2) 고시료
- ① 원서대 / 20,000원 ② 응시료 / 400,000원(논문 및 제출과목 심사비 포함)
- ③ 특강료 / 100,000원(교재비포함)
- ◆ 접수시 응시료 및 특강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3. 고시과목

- 1) 제출과목
- ① 논문제목
- 성경에 기록된 전염병의 사례연구 : 처방과 영적의미 : 20매
- 양식/ 글자크기/ 견본조 11 줄간격/ 180. 여백/ 위쪽 25mm 좌우 25mm 머리말 15mm 쪽번호 아래쪽 중앙 -1- 아래쪽, 꼬리말 15mm

- ② 성경주해
- 신약 : 요한복음 4:20~26 주께서 말씀하신 참 예배 5매
- 분량과 형식 / 논문과 동일하되 A4 5매

- ③ 설교문
- 마태복음 28:16~20 예수님의 지상명령 선교의 메시지 4매
- 분량과 형식 / 논문과 동일한 형식으로 A4 4매.

- ④ 제출마감 / 2021년 4월 30일 당일소인유효
- ⑤ 제 출 처 / (5492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17
- ⑥ 문 의 / 고시부서기 유남규 목사 010-4020-0675

4. 위원선정

- 1) 소위원 : 5명=부장, 서기, 회계, 황호관, 류현욱,
- 2) 심사위원 배정
- (1) 논문: 황호관, 서용진, 최승규
- (2) 주해: 정완득, 이부교, 최영일
- (3) 설교: 류현욱, 채영규, 신장균
- 3) 과목별 세미나 강사 선정
- 조직신학 : 황호관, 정지 : 류현욱, 교회사 : 정완득

5. 일정 및 장소

- 1) 예비소집 및 세미나: 5월 11일(화) 10시 전북개혁신학원
- 2) 고시일 및 장소: 6월 15일(화) 10시 총회개혁신학연구원

고시부장 강대민 목사 010-8007-1880
서 기 유남규 목사 010-4020-0675

고시료송금계좌 : KB국민은행 807701-00-010094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신학원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신학원 고시부

총 회 장 이경근 목사
고시부장 강대민 목사
서 기 유남규 목사



이해동 목사
(은누리사랑교회)

소그룹은 교회사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 왔다. 교회는 소그룹들의 태동, 발전, 계승의 영향을 받은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교회사에서 종교개혁 시대에 나타난 소그룹 운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종교개혁 시대의 소그룹 운동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잘못된 신학은 중세사회를 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의 이름으로 온갖 죄악을 양산하는 원산지가 되어갔다. 교황의 면제부 판매, 성경에 없는 연옥설 주장, 인권탄압 등으로 사회를 더욱 암울하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항하여 일어난 종교개혁은 카톨릭 교회가 지지해온 많은 잘못된 교리들의 성경적 회복을 주장하며 카톨릭

교회와의 단절을 가져왔다. 종교 개혁가들이 주장한 대안 중에는 소그룹 모임에 대한 회복과 실천에 대한 고려가 있다.

1) 루터와 소그룹
종교개혁 1세대 지도자 마틴 루터는 교회의 신학을 따라 교회의 구조를 개혁하려고 했었다. 루터는 '독일 미사와 예배 규정'의 서문에서 세 종류의 예배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예배는 라틴어로 드리는 미사이고, 두 번째는 독일어로 드리는 미사이고, 세 번째 예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마치 신약성경의 가정 교회와 유사하다. 이 예배는 참으로 복음적인 방식으로서 이것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직 진지하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갈망하며 순교 임으로 복음을 시인하는 사람들만이 자기 이름을 등록하고, 어떤 집에서 만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

하며 교회의 다른 일들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집에서 세례와 성만찬을 간결하고 단정하게 시행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은 루터의 신념이기는 하지만 실행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존스(D. M. Lloyd Jones)는 종교개혁이 지속되면서 루터가 낙담하였다고 지적한다. 루터는 자기 가르침에 응답하였던 교회들이 참된 영적 생명력과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참 그리스도인들을 한데 모아 일종의 교회 속의 교회(inner church)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루터의 지나친 경제성, 정치적 계산, 자기 교회 성도들에 대한 신뢰의 결핍 그리고 소그룹의 훌륭한 삶이 있는 재세례파교회에 주도권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만일 루

터가 신학 영역뿐 아니라 교회의 구조와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계획까지 성공했다면 오늘날의 교회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2) 재세례파의 소그룹
재세례파 운동이란 유아세례를 부정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신앙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재세례파는 16세기 종교개혁기에 스위스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소그룹에 관해서는 불멸의 모델을 제공했다. 중세교회의 예배를 개혁하기보다는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려는 재세례파의 노력은 자유롭게 좀 더 참여적인 예배 형태를 찾을 수 있게 해 주었다. 압박을 당한 재세례파는 소그룹으로 모임 수밖에 없었다. 허터파(Hutterite)같은 모임들은 생활공동체를 형성했다. 재세례파들은 박해를 피하여 자연스럽게 소그룹으로 모이게 되었고 소그룹의 예배의 형식을 통해 성도들이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지적이다.

이 재세례파 공동체는 물건을 통용하는 것을 상식으로 여겼으며 아울러 선교 공동체로서 헌신적인 자제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여 새로운 성도들을 자신들의 공동생활로 참여하게 했다. 이 재세례파 모임은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 모임이고, 기도와 말씀 봉독이 있으며 성령에 이끌리는 한 성도가 설교하는 예배를 드렸다. 또 공동체의 가난한 형제를 돕는 사랑의 헌금을 실시하고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말 그대로 전방적인 소그룹의 모습을 보였다. 한 번 모여 4시간 정도를 함께 하는 풍성한 모임이었다. 또한 소그룹만으로 모이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소그룹 연합 모임을 가정으로 분열을 방지하는 지혜를 보이기도 했다.

이들 재세례파는 당시 유럽 전역에서 혁명가나 위험한 선동가, 또는 기존의 질서나 받아들이지 교리의 파괴자라는 이름과 동의어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

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여준 도덕적인 삶의 모습과 소그룹의 모습은 교회의 신선한 도전을 주었고 소그룹의 좋은 모델로 남았다.

3) 칼빈과 소그룹
루터에 의하여 시작된 종교개혁은 칼빈에 의하여 다듬어지고 사상적으로 체계화되었다. 칼빈은 어떤 형식적인 의식을 거부하고 성경중심의 예배를 참예자로 보고, 교회 역시 말씀을 중심으로 한 모임으로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자를 중시하는 '직분자 중심의 교회'를 주장하게 되었다. 그가 생각하는 교회는 말씀을 기초로 성립하는 것이며 예배 역시 어떤 형식을 중시하는 미사 대신 말씀 중심의 예배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칼빈은 교인들을 교육하는 일과 훈련을 힘썼으며 학교를 세워 인재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그래서 교회나 학교는 모임이 적은 인원에서 시작하여 많

은 결실을 거두었다. 역사적 전통을 자랑하는 세 개의 위대한 미국 대학교인 하버드, 예일 및 프린스턴은 원래 칼빈주의자들에 의하여 칼빈주의 학교로 설립되어 교리분야는 물론 기타 학문분야에서 학생들에게 건전한 기초를 닦아주도록 그 목적을 두었다.

성경을 근거로 존 칼빈이 체계화한 장로교회는 소그룹 모임으로 시작된 교육과 훈련으로 큰 발전을 이루어 오늘날의 대교단인 장로교회가 되었다. 그러므로 칼빈은 공동체 내의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가정, 교회, 학교의 이상적 공동체 실현을 추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세에는 교황의 권위로만 모임을 할 수 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성경연구만 같은 신앙을 위한 소그룹 모임이 활발히 일어났으며, 이것은 종교개혁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소그룹 사역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목양 내조 記-4



양영자 사모
재언교회

양영자 사모는 재언교회 원로목사 임종학목사의 사모로서 1975년 결혼 후 45년 동안 동역했다.

우리 부부는 평신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자 했다. 남편은 직장인으로 경제생활을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했다. 낮에는 직장에 근무하고 밤에는 성경을 가르치며, 심방과 상담과 섬기는 일들을 맡았다. 나는 남편의 동역자로서 나에게 주

어진 일들을 기꺼이 감당했다. 성경공부와 상담과 집안일과 자녀 양육 등 모든 삶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일들이 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내 삶의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행복이다. 이렇게 평범하지만 열정적이며 행복한 평신도의 삶을 살고 있었다.

1980년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남편과 내가 대학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봉사하던 대학생 선교단체 ESSF(기독교대학인회) 간사로 일하라는 부르심이 있었다.

남편은 직장생활 9년 차로서 주임교사였다. 남편은 교사라는 직업을 좋아했으며 교장 선생님이 꿈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임 사역자의 길로 부르신 것이다. 나에게도 꿈이 있었다. 막내 시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남편이 학위과정에 진학하여 대학교수의 길로 가는 것이었다.

1980년은 막내 동생이 고3이었으므로 동생들을 돕는 일이 끝나고 나의 계획과 딱 맞아떨어지는 해였다.

1981년이면 남편이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는 해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르셨고 남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 나의 꿈을 버리기가 몹시 망설였었다. 어쩌면 이토록 시점이 딱 맞아떨어질까! 너무나 아쉬운 마음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는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했다.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순종해야 했지만 나는 시간을 끌고 있었다.

그해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느껴졌다. 그물 안으로 물고기를 몰아가시듯 나를 남편의 뒤를 따라 사역자의 길로 몰아가시는 듯한 강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나는 물결에 떠밀려 가듯이 주님의 부르심의 길로 나아가길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

1981년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그해 2월 남편은 좋아했던 교사의 직을 떠나 대학생 복음 운동 단체인 ESSF 간사의 일을 시작했다. 당시 ESSF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20여명의 대학생들이 모이고 있었고 ESSF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간 학사(ESSF) 졸업생들을 일컫는 말로서 구약의 성경선생 사사 에스라에서 본받음) 100여 명이 있었지만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모이는 것이 어려웠다.

당시는 시대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전두환 정권의 탄압과 비상계엄으로 대학생 모임이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 대학생들은 일상적인 모임도 모이기 어려운 시기였다.

따라서 ESSF의 재정상태 또한 많이 어려웠다. 우리의 생활비는 직장을 그만두면서 절반 정도로 줄였는데 그 생활비도 잘 나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남편은 그 당시에 세 아이들의 교육이 걱정되었다고 회고했다. 나는 생필품을 사서 쓸 수나 있을지 의문스러웠다.

그러나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사랑감과 열정을 부여 주셨다. 복음을 위한 일에 전념하게 되었으니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었다.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 사회에 내 보내며 목회자와 선교사로 세워 파송하는 것이다. 우리의 주된 방법은 전도와 성경공부, 제자훈련 그리고 공동체 훈련이었다.

대학생들이 전도와 성경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제자로 세워지고 또 그들이 전도하여 제자를 세워가는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사역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전도와 제자 양육과 구제의 3대 사역을 동시다발적으로 실행한다. 이러한 사역들은 1:1 성경공부와 소그룹 사역과 전체

공동체예배와 수양회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매일 묵상 교재와 성경공부 문제집과 신앙 서적 등을 발행하여 활용하며 보급하는 문서 사역도 병행한다.

졸업생들을 학사로 부르며 구약의 에스라처럼 성경선생으로 교회와 사회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성장했던 ESSF에 선교헌금을 하며 월 1회 학사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며 매년 여름 수양회와 겨울 성경학교를 운영한다.

학사들의 다양한 후원이 학생복음 운동에 매우 큰 역할을 한다. 남편은 1981년 1월부터 2000년 12월 까지 만 20년을 한결같이 대학생 복음 사역에 힘을 쏟았다.

출발은 어려웠지만 눈물겨운 과정들과 학사들의 헌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 역사는 장작불이 타오르듯 이정장의 불길기 타올랐다.

20여 명의 학생회는 300명~400명으로 성장하였으며 20여 명이 넘는 간사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했다. 그동안 1000여 명의 학사들이 배출되었고 수백 명의 선교사, 목회자, 목회자 사모들이 세워져서 한국 사회와 교회와 전 세계에 나아가 지금 이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다.

20세기 말에 국가적으로 힘나했으 우리는 매우 미약했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열매를 맺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다. 내 생명의 주인인신 예수님께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1982년, 평신도로서 ESSF 간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신학공부의 길을 열어 주셨다. 전임 사역자로서 신학 공부만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전국교회예배안내

<div><div>영복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 5:00 주일 : 11:00 : 2:00 수요일 밤 : 7:00 금요일 밤 : 9:00</div></div></div><div><div>담임 이충년 목사</div><div>10218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숭로로 42-1 (대화동 1459-7) 전화 010-8955-1752</div></div></div>	<div><div>등명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 5:00 주일 : 11:00 : 2:00 수요일 밤 : 7:00 금요일 밤 : 9:30</div></div></div><div><div>담임 류현욱 목사</div><div>54610 전라북도 익산시 동천로1길 14-31(동산동) 전화 (063)854-5180 / 010-9654-5180</div></div></div>	<div><div>새은혜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 5:00 주일 : 11:00 : 2:00 삼일 밤 : 7:00 금요일 밤 : 9:00</div></div></div><div><div>담임 박형진 목사</div><div>1547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8 이노브라자 7층 전화 010-8424-0688</div></div></div>	<div><div>극동선교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 5:00 주일 : 오전 11:00 : 2:00 수요일 밤 : 7:00 금요일 밤 : 9:00</div></div></div><div><div>담임 박봉주 목사</div><div>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14비길 11-9 전화 010-9980-1156</div></div></div>	<div><div>성인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 5:00 주일 : 11:00 : 2:00 수요일 밤 : 7:00 금요일 밤 : 9:00</div></div></div><div><div>담임 정원득 목사</div><div>5508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2길 24-6(삼천동17가) 전화 010-7285-8291</div></div></div>
<div><div>동주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 5:00 주일 : 11:00 : 2:00 수요일 밤 : 7:30 금요일 밤 : 8:00</div></div></div><div><div>담임 김양섭 목사</div><div>11414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심일로 185번길 110-16 전화 (031)873-6857 / 010-7221-5852</div></div></div>	<div><div>월드비전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 5:00 주일 밤 예배 : 1부 9:00, 2부 11:00 수요일 밤 예배 : 7:00 금요일 밤 : 9:00</div></div></div><div><div>담임 김선영 목사</div><div>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전원로 32 전원마을 월드성가네 전화 010-2301-0898</div></div></div>	<div><div>임마누엘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 5:00 주일 : 11:00 : 3:30 수요일 밤 : 7:30 구약예배(금) : 9:00</div></div></div><div><div>담임 윤서구 목사</div><div>1313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회랑로534번길 6-8(상선동) 전화 010-3722-9106</div></div></div>	<div><div>증산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 5:00 주일 : 11:00 : 2:00 삼일 밤 : 7:00 금요일 밤 : 9:00</div></div></div><div><div>담임 김정웅 목사</div><div>44424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3길 11-2(성안동) 전화 (052)243-0255, 243-0344 / 010-3848-0691</div></div></div>	<div><div>소성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 5:00 주일 : 오전 11:00 : 2:00 수요일 밤 : 7:30</div></div></div><div><div>담임 이승규 목사</div><div>5513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양지길 16-11(삼천동17가) 전화 (063)226-9111 / 010-7420-0634</div></div></div>
<div><div>수원성심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 5:00 주일 : 1부 9:00, 2부 11:00 수요일 밤 : 3:00, 7:30</div></div></div><div><div>담임 박춘배 목사</div><div>1622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곡로 412(연무동) 전화 010-2752-1634</div></div></div>	<div><div>은누리사랑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14:00 수요일 오후 7:00</div></div></div><div><div>담임 이해동 목사</div><div>서울 도봉구 도봉로 145길 33(방학동) 3층 전화 010-2913-3059</div></div></div>	<div><div>꽃밭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 5:00 주일 : 11:00 : 2:00 수요일 밤 : 7:00 금요일 밤 : 9:00</div></div></div><div><div>담임 박광식 목사</div><div>02753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월로3길 1(상월동) 전화 (02)915-0622 / 010-9161-0167</div></div></div>	<div><div>한소망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 5:00 주일 : 오전 11:00 : 7:30 수요일 밤 : 7:30</div></div></div><div><div>담임 김정호 목사</div><div>548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암길 10(반월동) 전화 010-3652-9191</div></div></div>	<div><div>김제반석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 4:30 주일 : 11:00 : 2:00 수요일 밤 : 7:00 금요일 밤 : 9:00</div></div></div><div><div>담임 이부교 목사</div><div>54338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청운3길 21 전화 010-3657-0464</div></div></div>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제105회기 총회주일 세례교인 헌금



총회주일은 총회산하 교회가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세례교인 헌금을 하는 주일입니다. 모든 세례교인들은 1년에 한번 1만원 헌금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총대교회는 15만원 이상 6월 30일까지 입니다.



이경근 목사

강대민 목사

신연식 목사

박춘배 목사

박형진 목사

김양섭 목사

문만호 목사

이다윗 목사

김정호 목사

진상운 목사

박광식 목사

박경남 목사

최갑철 목사

이철영 목사

이해동 목사

김선영 목사

제105회기 세례헌금현황

번 호	교 회	담 임	노 회	금 액
1	평안교회	이경근 목사	전북동노회	1,000,000
2	성현교회	강대민 목사	서울남노회	440,000
3	디베라교회	신연식 목사	경서노회	200,000
4	수원성심교회	박춘배 목사	서울남노회	1,200,000
5	새은혜교회	박형진 목사	경서노회	500,000
6	동주교회	김양섭 목사	경중노회	150,000
7	양곡제일교회	문만호 목사	서울남노회	100,000
8	찬양교회	이다윗 목사	서울남노회	300,000
9	한소망교회	김정호 목사	전북노회	1,100,000
10	에벤에셀	진상운 목사	전북중부노회	150,000
11	꽃밭교회	박광식 목사	경기노회	400,000
12	중심교회	박경남 목사	경기노회	200,000
13	남광교회	최갑철 목사	전북노회	500,000
14	은혜로교회	이철영 목사	경중노회	150,000
15	온누리사랑교회	이해동 목사	경기노회	200,000
16	월드비전교회	김선영 목사	서울남노회	200,000

입 금 계 좌

농협 301-0116-92128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국민 488401-01-22548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 ❖ 교회의 형편에 따라 주일을 정하여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송금 후 교단본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영수증이 필요한 교회는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 총회장 이 경 근 목사
서 기 신 연 식 목사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3-4(3층) 전화 02)742-3538, 010-6258-0109



경기노회 제196회 정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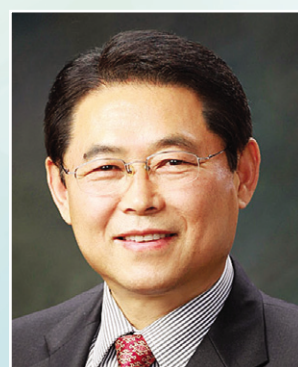


노회장 박만진 목사
(덕소제일교회)

노 회 장 박 만 진 목사(덕소제일교회)
부 노 회 장 허 종 목사(북원교회)
박 병 옥 장로(꽃밭교회)
서 기 전 기 원 목사(예성교회)
부 서 기 오 영 진 목사(온세상교회)
회 의 록 서 기 류 성 훈 목사(소망교회)
회의록부서기 정 용 경 목사(새영교회)
회 계 송 용 준 목사(마음향기교회)
부 회 계 박다니엘 목사(효신전원교회)



전북노회 제171회 정기회



노회장 김정호 목사
(한소망교회)

노 회 장 김정호 목사(한소망교회)
부 노 회 장 박종운 목사(화평교회)
장로부노회장 이정두 장로(인월동광교회)
서 기 홍주일 목사(모악교회)
부 서 기 김해수 목사(예수촌교회)
회 의 록 서 기 노연수 목사(군산예안교회)
회의록부서기 이부교 목사(반석교회)
회 계 조성운 장로(길교회)
부 회 계 박인규 장로(모악교회)